

기술기 《Theater Near Me》

2018 년 10 월 18 일 - 11 월 17 일
오프닝리셉션: 10 월 18 일, 목요일, 오후 6 - 8 시

장소: 두산갤러리 뉴욕, 533 W 25th St., New York, NY 10001



'연극'이라는 소재로 시간과 공간을 재해석한 기술기 작가의 두산갤러리 뉴욕 개인전

두산갤러리 뉴욕은 2018 년 10 월 18 일부터 11 월 17 일까지 기술기의 개인전 《Theater Near Me》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7 년 두산갤러리 서울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작업 중 신체가 등장하는 일부 작품들과 2018 년 하반기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 기간 동안 완성한 신작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기술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시화하고 대상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작업해왔다. 그는 주로 사진을 다루지만 설치나 퍼포먼스 등의 매체를 통해 안과 밖, 부분과 전체, 그리고 친숙함과 불안함 등 서로 대조적인 관계의 개념을 주된 동력으로 삼았다. 이전 작품들에서는 머릿속에 구상한 완벽한 상을 여러 과정을 통해 연출해 냈다.

이번 두산갤러리 뉴욕에서 선보이게 될 작업은 지금까지 해왔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연극'에 대한 관심이 계기가 되어 제작되었다. 《Theater Near Me》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함축성과 그것을 해석하는 관객을 의미한다. 기술기는 2015 년 '한일국교 정상화 50 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한일 차세대 문화인 대담'에 초대되어 극작가 겸 연출가인 오카다 토시키와 대담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주된 관심사였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는 연극이라는 매체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Theater Near Me》는 대담에서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여러 연극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연극을 이루는 무대는 작품 화면의 프레임으로, 배우는 사진 속 모델의 제스처로, 희곡은 작가로 구성되어 보여진다. 기술기는 연극에서 회화적 효과를 연출하는 타블로 비방(tableau vivant) 방식을 차용해 이미지를 제작했다. 타블로 비방은 배우가 짧은 순간 정지된 상태를 취함으로써 배우의 말과 동작이 잠시 동결된 장면을 연출한다. 이 기법은 기술기의 작품들에서 시간적 연속성에서 탈피된 집약적 정서를 보여준다. 기술기가

시도한 연극이라는 소재는 관객들로 하여금 친절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점과 파편화된 단서로 마주하게 되며 화면 밖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상상력과 감각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슬기(1983년생)는 서울예술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상명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영국 런던 슬라이드 대학교에서 파인 아트를 석사 졸업하였다. 두산갤러리서울(2017,서울,한국), 스페이스 K(2015, 서울, 한국), 갤러리조선(2013, 서울, 한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서울미술관(2017, 서울, 한국), 주베트남 한국문화원(2017, 하노이, 베트남), 살롱드에이치(2016, 서울, 한국), 간송미술관(2016, 서울,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2015, 과천, 한국), 두산갤러리 서울(2015, 서울, 한국), 국립신미술관(2015, 도쿄, 일본), 제주도립미술관(2015, 제주, 한국), 경기도미술관(2014, 안산, 한국), 서울시립미술관(2013, 서울, 한국) 외 다수의 그룹전을 개최하였다. 기슬기는 2015년 두산아트랩 전시 선정 작가이다.

DOOSAN
Gallery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 1-212-242-6343(6484)

SEOUL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길 15
두산아트센터 1층 03129
T. 02-708-5050

RESIDENCY NY

511 West 25th Street 7F,
New York, NY 10001
www.doosangallery.com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